

4/7/24

설교 제목: 한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행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2 장 1-18 절

-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 (빌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 (빌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빌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빌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빌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빌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 (빌 2: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2: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하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자매였고 둘 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었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  
서로의 의견이 달라 교회 내에 갈등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같은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교회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달라 갈등을  
초래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시고 성도들이 각각 지체를 이룬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때인지라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내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일체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진대 그것들을 행할 때 한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행하라고 합니다.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 네 가지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누되 특별히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일들을 행할 때 일심단합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라는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일심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심단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같이 행하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어 겸손을 교훈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곧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낮고 천한 이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여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앞에 복종하게 하사 그를 주라 시인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빌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를 주라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니요?  
그렇다면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칭의를 받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 10: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 10: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더하여 행할 필요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얻은 의를 삶 속에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곧 얻은 의에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를 감사히 받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화하라는 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justification)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화(sanctification)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화롭게(glorification)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견인하신다고 합니다.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성화의 삶을 견인하십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지려는 소원, 선해지려는 소원 등을 품게 하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밝히라고 합니다.

(빌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 2: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화의 목표는 흠없고 순전한 삶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성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타내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삶은 흠없고 순전한 삶 곧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성화된 삶을 살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신의 달음질과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는 헛되고 그들의 사역은 열매없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 때 복음 전도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기쁨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목회자의 기쁨과 자랑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순교가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2: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하느니라

‘관제’는 고대 제사의 관습에서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고 한 것은 자신의 순교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실에 감격하면서 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구원의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합당한 성화의 삶 곧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자 값없이 의를 얻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자 자신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천국 소망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